

제공일자	2013. 9. 17(화)	담당자	조용운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18, 010--7190-1100

총2매

제목 : 본인부담진료비 증가 추세, 실손의료보험료에 반영해야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조용운 연구위원과 황진태·조재린 연구위원은 『건강보험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.
- 2012년 말 현재 3천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실손의료보험은 범국민적인 보험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,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수지 악화와 갱신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었음.
 - 본 연구에서는 잠재보험금지급규모의 추세를 분석하여 최근의 보험료 상승현상을 진단하고자 하였으며, 노후의료비의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연령별 진료비 지출증가율을 분석하였음.
- 국민건강보험의 출범 이후 1인당진료비 증가율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.
 - 남자입원의 경우 0-64세 군은 연평균 3.4%(외래는 4.4%), 65+세 군은 7.9%(외래는 8.4%)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음.
 - 여자입원의 경우 0-64세 군은 연평균 4.1%(외래는 4.5%), 65+세 군은 10.5%(외래는 8.5%)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음.
 -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있음.

- 2005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진료비 증가율이 진료비* 증가율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* 국민건강보험 의료비=진료비(급여비+법정본인부담금)+본인부담진료비

- 남자입원의 65+세 군은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는 연평균 11.4%(외래 7.6%), 총본인부담진료비는 17.5%(외래 13.4%)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계되어 그 차이가 6.1%p(외래 5.8%p)로 나타남.
 - 65+세 군의 인구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 연령군의 총본인부담진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.
- 남자입원의 0-64세 군은 그 차이가 2.4%p(외래 1.6%p)로 나타남.
- 여자입원의 65+세 군은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는 연평균 14.2%(외래 6.7%), 총본인부담진료비는 20.1%(외래 11.3%)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계되어 그 차이가 5.9%p(외래 4.6%p)로 나타남.
 - 여자의 경우도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5+세 군의 인구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본인부담진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임.
- 여자입원의 0-64세 군은 그 차이가 1.5%p(외래 0.6%p)로 나타남.
-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, 특히 고령자의 본인부담진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.

- 본인부담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원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진료비의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큼.

- 보험회사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진료비 증가 추세를 적절히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- 국민건강보험은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노력과 함께 고령층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